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1,

요한복음 9:1-41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 소경과 소경, 요한복음 9:1-41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9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일이 잘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아마도 많은 어둠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말하자면 일생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그의 눈이 먼 것이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시고 다루시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자신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눈먼 사람이라는 매우 심오한 역설이나 아이러니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은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이야기 흐름의 관점에서 장이 펼쳐지는 방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주제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고 미신, 즉 맹인에 대한 세계관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9장 2절에서 예수님께 랍비,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느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모가 행한 일 때문에 무고한 아이를 벌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장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전에 벌을 주실 것인지는 나에게서는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죄를 지었습니까? 글썄요, 그들이 태 속에서 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난 후에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눈 멀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매우 이상한 견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종류의 세계관을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하위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어떻게 맹인을 만나 죄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반박하시는지 읽습니다. 그분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나중에 spittle을 사용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웬지 침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뱀어낸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무감각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란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침을 뱀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7장에서 초막절과 관련된 실로암 못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전제를 드리려고 거기에서

물을 길어왔는데, 아마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배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서 씻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는 가서 씻고 집에 와서 보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동네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들이 모두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8절부터 12절).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흥미 롭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았거나 단지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내가 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장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전에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남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이웃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의 부모는 정확히 일어서서 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의 끝에서 예수님은 그의 곁으로 오셔서 그를 예수님과 그의 사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좌절이 9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나야'라고 말합니다. 나야.

나는 정말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전체 이야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어디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는 다른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에게 질문을 하며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지도자들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13절부터 34절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장의 주요 부분이자 문학적으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질문할 때 여기에는 꽤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일어난 일을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그는 이미 이웃을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바리새인들을 위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눈은 어떻게 뜨셨나요? 그래서 남자는 '글쎄,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뭔가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의 예수에 대한 이해는 예루살렘 초기에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이 2장 끝 부분에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더 큰 무리 중 다른 사람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이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군중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 의해 먹이시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선지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들은 그를 항상 그들을 돌봐줄 일종의 메시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는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마도 그는 3장에서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의 스승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이유로 우리는 5장까지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16절에 따르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곧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서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흠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것이 안식일에 일하신 것이거나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너무 멀리 걷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부모님들과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증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메시아로 지지하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맹인으로 태어났나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우리는 목을 내밀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성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그 부모들이 일어난 일을 확증하기를 그토록 꺼린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정한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편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주제이자 요한복음에서 다시 보게 될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24절에서 세 번째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총 세 번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랐거나, 그 일을 예수께 돌리지 않고 직접 하느님께 돌리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26절).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나요? 그러자 그 남자는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런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이 별떡 일어나 이의를 제기하고 말하고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글썄, 이것은 이미 요청되었습니다. 이미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말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7절. 왜 다시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기 남자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붙이고 테이블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너는 이 사람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신명기,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모세가 실제로 율법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가져오시는 예수님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모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모세 사이에 이분법을 두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예수가 궁극적인 모세, 모세가 기대했던 모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모세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는 것을 요한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를 증언하였으니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글쎄요,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그를 고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목소리에서 독설을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모욕으로 인해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일어난 일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그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실용적인 주장입니다. 철학자들이 그것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엄밀히 말하면 논리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장님이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또 다른 별명으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젖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던 오해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의 눈이 먼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경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에 젖어 있었는데, 감히 우리에게 강의를 합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에 대한 지도자의 회의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땅 백성이 받는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았다. 34절이 결론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완전히 버림받았고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여전히 회당 관계에서 편안하고 아늑하다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아니,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일만 말하고 그들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장이 부드러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영혼들의 목자이시며 10장에서 그에 관해 읽을 내용을 기대하시는 부분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35절) 그에게 묻습니다. 그를 찾아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남자는 솔직하게 “글쎄,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이유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제 그를 보았고 실제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나인데 그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장의 결론을 제시하는데, 나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신학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심판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소경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대화의 가장자리에 맴돌고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물었다. 우리도 장님인가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소경이 되어도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혀 시력을 갖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력도 있고 감독권도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은 없습니다.

소경이더니 이제는 보게 된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쫓겨났으나 이제는 여러 가지로 보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흥미롭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과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는 주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8장의 끝으로 돌아가서 9장과 8장 사이의 전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8장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매우 열띤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감각적으로는 그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원하는 만큼 그를 믿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친히 성전 뜰에서 떠나가시니라. 그는 자신을 숨겼습시다. 그는 거기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다소 흥미롭습시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성전에서 떠난 것을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는 그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사야서의 폐지를 강조하신 것 같습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후 성전을 떠나실 때, 이것은 요한이 에스겔서에 여러 구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떻게 떠났는지를 미묘하게 상기시켜 주는 방법일 것입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차 떠나는 것을 보았습시다. 아마도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공관복음 전통에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입시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화를 선언하고 특히 20절, 23장, 37-39절에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애도한 후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걸어나오습시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부분에서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습시다. 그리고 그는 설명하기를, 음, 그렇습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물어질 것입시다. 따라서 여기에는 첫 번째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반향과 의도가 있을 수 있습시다.

여기 8장에서 9장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이 8장 12절에서 그 장의 핵심 내용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어둠과 빛의 배경은 분명히 9장 5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지만, 그의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시다.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8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8장 50절의 이미지와 9장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심판관이니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개념적 배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실로암 못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언급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배경을 논의하면서 이미 그것을 조금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그것을 봅니다. 따라서 아직 해당 강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이미 강의에서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 드리며 다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윗 성 남쪽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큰 웅덩이를 최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침내 실로암 못의 실제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다윗의 도시에 있는 성전 산 남쪽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지도에서 그들은 단지 추측해서 바로 여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지도.

물론 최근 발견에 따르면 그 곳은 다윗의 옛 도시 끝자락에 있는 성전 남쪽 입구에서 더 남쪽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남쪽 끝에서 도시의 아래쪽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이전에 그들이 찾은 사이트는 최근에 찾은 사이트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에게 이 특별한 장소가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유적지는 1세기 유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매우 큰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는 거대한 설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한쪽의 길이는 156피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중요한 설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헤롯 왕조 시대의 원래 석조물 대부분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히스기야 터널 워크를 이용하면 여기로 다시 나와서 몇 계단을 내려와서 이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수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이 현대식 하수구 설치 작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던 중에 이 유적을 발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새 아파트 건물의 기초를 파는 등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고대부터 깨진 돌을 모두 나무로 덮어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해를 보여주고 해석해 주는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의 물 설치물인 열왕기하 20장과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히스기야의 즉위는 헤롯왕 시대에서 유래한 이 후기 풀의 배경인 기대작이었을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전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함께 뭔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Biblical Archaeology Review 기사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Wikipedia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찾은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이 수영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꽤 좋은 생각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배경과 본문의 일부 물리적 참조 부분에서 다시 본문 자체와 신학 사상으로 이동합니다. 본문 전체는 죄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명.

이것은 분명히 인류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반대도 문제다.

왜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불경건한 자가 변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때때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며 여기서 강조점은 때때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때때로 성경은 사람들의 죄,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질병, 죄, 비극이 닥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꽤 최근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고친 중풍병자에 관한 내용을 읽었을 때, 성전 단지 반대편인 북쪽에 있는 다른 못에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는 아마도 그의 질병이 그가 마비되기 전의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주의 식탁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장로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질병이나 비극과 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때때로 악명 높은 죄인들이 변영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설교자 코헬렛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는 때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삶을 빼앗기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경건한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도서에는 이 내용이 두어 번 나옵니다. 잠언에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본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즉 불경건한 사람들이 왜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불경건한 나라들보다 어떻게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를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셨고 이제까지 어떤 인간이 받은 대우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특히 사도행전 28장에서 몇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난파선 이후에 그들은 한동안 섬에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Paul은 불을 피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나무 조각을 움켜쥐고 뱀 재갈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글썩요.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은 풀이 그 시점에서 몸을 굽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Paul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Paul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울에게 뭔가 신성한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 계층 모두에서 틀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다루었던 실제 질병, 즉 자신의 신비한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에게 그것을 제거하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실제로는 강함을 깨닫게 하려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만일 내게 이 환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받은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나치게 교만하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담과 이브의 죄의 결과, 혼란스러운 세상, 부서진 세상, 모든 것이 항상 가야 할 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입니다.

현 세상의 모든 것이 괜찮다면 우리에게 종말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의 결과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이 세상의 삶이 혼란스러운 삶이 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그 날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조각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보지만, 아직 그것을 모두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무죄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더욱 간절하게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사람이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성경적 근거는 없으며 가르칠 근거도 없습니다. 이것이 맹인에 대한 일종의 가정이었습니다.

맹인의 논리가 바리새인들을 궁지로 몰았을 때 그들은 그 사람에 대해 이 별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9장 34절).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단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야 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덕에 대해 어떻게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9장에서 맹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제 생각에는 11장에서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아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즉시 가서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병이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장 4절을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썄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예수께서는 삶과 죽음, 그분에 대한 믿음에 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요한복음 9장과 초기 구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요한복음 11장의 초기 구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식에 다소 당황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은 멀리서 이 청년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병을 고치신 것은 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요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5장에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동정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물을 휘저을 것이고, 물의 순환이 멈추기 전에 어떻게든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곳의 치유와 모호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실 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고쳐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선한 유대인인 그들은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위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치료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과 치유는 흔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치료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수행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믿음과 치유는 종종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중 일부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과 함께 일하고 계시지만 그는 그에게 믿음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매우 이상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는 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 흠이나 진흙을 조금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베데스다 못에 가서 낫고 씻어내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도 사용하신 일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마가복음 7장은 귀먹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침을 뱉으신 사건이다. 내 생각에 마가복음 8장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장소이다.

그리스-로마 자료와 유대 자료 모두에서 침에 대해 말하는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침이 때때로 약효가 있다는 미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혼합된 문헌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도 있습니다. 침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죄송해요, 한잔 마실게요. 유대인 자료에는 침의 사용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혼합된 리뷰가 있습니다.

의학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일부 텍스트도 있지만, 의식적 불결함의 문제라고 말하는 텍스트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고대에도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것이 그 사람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경멸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은 머리를 굽는 일입니다.

고대나 오늘날이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땅의 흙과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에서 흙으로 왔으니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주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 그가 참으로 최초의 창조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이 남자의 시력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질문에 대한 설득력이 있거나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제가 가진 최선이고 여전히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여기서 창세기 2장을 다시 방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이상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흠과 침이 섞였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기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도록 허락했고 그는 소경처럼 내려갔습니다. 실로암 못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인데 그는 씻었더니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실로암 못에서 몸을 씻는다는 개념입니다.

그 뒤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내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를 못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는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일종의 말장난이었고 그가 가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씻으십시오. 편집자 의견.

이 단어는 보내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가는 못으로 보내시니 그 사람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 이야기를 고려할 때, 그를 다른 못인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을 받은 요한복음 5장의 중풍병자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두 텍스트를 하나로 묶는 것은 유사점과 차이점 모두에서 다소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안식일 치유를 비교할 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은

중풍병자가 된 지 38년이 된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숫자 38에 대해 어떤 상징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의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오랫동안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즉시 사라질 수도 있는,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남자가 일생의 상당 부분을 다루어 왔던 만성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마비를 겪으면서 겪은 심각한 문제였지만 전혀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 즉 선천적 실명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예수께서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 나아와 치료를 요청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4장의 관리의 경우처럼 누군가가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거나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다른 치유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두 경우 모두 아버지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5장에 따르면 예수님. 9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나를 보낸 이는 9장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5장에서 일하고 있다. 5장에서 그 사람은 물을 구하다가 물에 뛰어들면 물이 동할 때에 생각하는 줄로 생각하였느니라 천사가 그를 낮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물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실로암 못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물을 구하지도 않았고 실로암 못의 가치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계정의 물에 대해 일종의 반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기록 모두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는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5장과 9장에서 이 모든 사건은 가르침의 문제이며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의 성격을 설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장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동정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때문에 병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과 일종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9장에 보면 소경은 바리새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묻는 것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5장과 9장의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관계입니다. 5장의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고 마비는 그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장에는 그것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5장에는 이 중풍병자가 신자가 된 것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의 논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의 영원한 운명을 여기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자체로 말하자면, 그가 신자라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모범적인 신자가 됩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 9장 끝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상당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5장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증언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계속되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9장의 짧고 간결한 진술은 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소경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 이제 육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아이러니한 결론을 얻었고,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통찰력의 문제 모두와 관련된 맹인이라는 생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가, 점차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실 때,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표현합니다. ,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예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 보통 사람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지위 있는 사람들, 토라 전문가들, 육신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 문화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통찰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이 소경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눈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감고, 그게 역설이에요. 빛과 시력에 관해 말하는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지만 여기에서 제기할 수 있는 성경 신학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어떻게 영적인 인식에 대한 은유가 되는지에 대해 이 구절 중 일부를 보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시드 본문은 이사야서의 사명과 관련된 이사야서 6장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좌에 높이 들리신 것을 보고 자신을 열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는 가서 나를 보내실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맡기신 사명은 확실히 즐거운 사명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갖고 있는 사명은 마음이 완악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6장과 다른

공관복음 전통과 못에 대한 설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더라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다고 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의 대중문화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고,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십 년 전인 1970년에 유머러스한 노래를 많이 불렀던 Ray Stevens의 팝송도 있었는데, 그 노래는 Everything is Beautiful in Its Own Way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너무 눈이 멀어 당신의 세계관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의 가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Ray가 기본적으로 노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눈 먼 사람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맹인으로 남아 있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실제로 맹인인 것이지 신체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 중 다수는 지각력이 뛰어나고 기민하며 지적 성취 측면에서 매우 정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맹인에 대한 성경의 이 사건을 추론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 맹인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맹인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소경을 비웃거나 큰길에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욥기 29장에도 동일한 유형의 가치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35장은 아마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문제를 고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다? 예수께서는 소경이 보는 것과 귀머거리가 듣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언급하셨는데, 아마도 이사야 35장을 암시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 중 일부는 육체적인 눈먼 것에 관한 본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예언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에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제가 이 본문을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와 다른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사람들을 눈멀게 할 것이며 눈멀음은 심판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눈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분의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을 눈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와 마가처럼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먼 것이 바울의 사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첫 선교 여행 중에 구브로 섬에서 엘야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신비주의 개인, 일종의 영매, 마법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엘루마를 똑바로 바라보라, 원하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 그리고 네게 온갖 거짓과 술책이 가득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흥미롭다. 당신은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치셨느니라 당신은 한동안 눈이 멀어 태양빛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행위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하나님의 일에 눈이 멀어 바울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상태는 그의 영적 맹목에도 적합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재판을 받고 아그립바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때 자신의 사명을 특별한 방식으로 특징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박해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죄 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어떻게 오셨는지 다시 한 번 볼 수 있으며,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의 눈먼 성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멀게 된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각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 소경과 소경, 요한복음 9:1-41입니다.